

공세화하는 중국의 안보국방 정책에 관한 연구

이상국(한국국방연구원)

논문 요약

최근 들어 중국은 과거와 달리 적극적 또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인 행보를 종종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2012년 18차 당 대회를 앞둔 엘리트간 권력 경쟁에 초점을 둔 논의와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강조하는 논의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최근 중국이 보이고 있는 대외정책 기조는 일시적, 일회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과 국력의 성장, 중국의 세계 참여 확대와 자신감과 관련한 중국 리더십의 안보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관련돼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에 더해 2012년 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망을 통해 중국의 안보, 국방정책이 향후 더욱 공세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제어: 중국, 안보·국방정책, 국가발전전략, 안보위협요인, 핵심이익, 연합작전체계, 중앙군사위원회

I. 서론

1990년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국내외 학계에서는 향후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세계 질서의 안정과 평화, 주변국들의 안보와 발전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지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에 위협적일 것이라는 주장과 중국의 부상(浮上)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대립돼 왔다.¹⁾

이와 같은 외부의 논란에 대응해 중국은 자국의 성장이 세계 평화와 주변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펼쳤다. 이를테면,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중국은 자국의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환율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이후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을 내세우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원조 및 경제적 지원을 크게 강화해 왔다. 그 주요 대상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들로, 중국은 이들 지역에서 그 기반이 취약한 각종 사회 인프라의 건설에 적극 참여해 왔다. 한편 중국은 소프트파워 차원에서 중국식 발전모델의 우수성과 유교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크게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대외안보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국제정치적 사건들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10년 미국의 대대만 무기 수출과 중국의 대화중단 선언,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서 중국의 대응방식,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의 노벨평화상 수상 관련 중국 당국의 압

1)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Christensen, Thomas J.,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a Monster?: the Rise of China and U.S. Policy toward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1, 2006, pp. 81~126.

박외교, 2010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토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의사표현 그리고 영유권 주장 과정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외교 행보와 무장 및 군사력 전개 등은 그 동안 중국이 보여준 대외 이미지 개선 노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이와 같은 적극적(assertive) 또는 공세적인(offensive) 행보의 성격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첫째는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성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이를테면, 최근 중국의 태도를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중공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엘리트 사이의 단순한 권력 투쟁의 산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²⁾ 다른 하나는 구조적 또는 지속적인 성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들 가운데는, 중국의 적극적 행동이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와 같은 대외적 환경, 중국내 사회 불안정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 수 있다.³⁾ 한편, 앞서 언급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안보정책 결정과 관련된 중국의 제도·엘리트 요인도 중국의 적극적 안보정책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중국의 적극적 대외안보정책이 단순히 국내 정치 일정에 따른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장기적인 국가발전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같은 등 국력 요인 등과 더욱 밀접히 관련돼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안보·국방정책에 대한 전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절에서는 중국의 국가전략의 발전, 곧 ‘부국강병’ 구상과 중국군의 현대화 구상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다룬다. 이어서 중국의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중국

2) Dyer, Geoff, "Sabre-rattling at Washington risks opening Pandora's box," *Financial Times*, February 9, 2010.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waine, Michael D., "Perceptions of Assertive China,"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2, Summer, 2010.

4) 이상국 등,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안보·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 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리더십의 자국의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과 안보국방 전략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중국군의 작전체계와 지휘체계의 변화, 특히 2012년 제18차 중공당 당대회에서 새롭게 구성될 차기 중국군 최고 지휘부에 대해 살펴본다. 곧 중국의 연합작전체계와 중국군 최고 지휘체계를 고찰하고 이것이 중국의 안보국방정책에서 갖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중국의 안보국방정책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본다.

II. 중국의 ‘부국강병’ 구상의 발전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대외정책 방침에 따라 낙후한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둔 국가전략을 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980년대 후반 개혁개방 10여년의 성과에 기초해 부국(富國) 실현에 대한 구상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공당은 ‘3단계(三步走)’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개혁개방기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⁵⁾ 이후 1997년 중공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이 전략은 더욱 구체화했다. 곧, 이 당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은 1단계인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을 2000년의 두 배로 끌어올리고, 중공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는 국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해나가며, 마지막 제3단계 기간 곧 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기 중반까지는 현대화 실현, 부강

5) 趙紫陽, "沿著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在中國共產黨第十三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一九八七年十月二十五日)."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20/content_697061.htm

(富強)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후 2002년 제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은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진국 수준의 사회·경제 상황) 사회를 실현하며, 공업화의 기본적인 실현, 종합국력의 현저한 증강, 국내시장 규모면에서 세계 선두를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⁶⁾

그런데 중국의 국력 성장이 현저해지는 반면 미국 경제가 상대적 정체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 들어,⁷⁾ 중국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2007년 중공당 제17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과정에서 부국(富國)과 강군(強軍)의 통일 실현,' '국가 안보와 발전 전략의 고도(高度)에서 서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통일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국의 강병(強兵) 건설을 공식화했다.⁸⁾

사실 중국은 부국강병 건설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 현대화 발전전략을 오래 전부터 발전시켜 왔다. 중국의 국방 및 군대 현대화는 기본적으로 3단계 발전(三步走)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전략

6) "江澤民在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1997年9月12日)."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8/65445/4526285.html>

"江澤民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2002年11月8日)."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65444/4429125.html>

7) 1978년~2009년 사이 중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9.5%,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약 6.5%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반 상승해 1978년 1.8%에 그쳤으나 2008년 7.1%로 상승하면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6년 중반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 둔화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2001년 이후 2004년 3.5% 성장을 정점으로 한 이후 두 차례의 마이너스 성장과 2% 전후의 성장세에 그치고 있다.

8)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초기 중국 공산주의자 13명이 상하이에서 회합을 갖고 1921년 7월 23일 중국공산당을 발족했다. 陳述, "三步走'發展戰略決策的形成與發展." 『中國黨政幹部論壇』, 2011년 7월 15일, <http://theory.people.com.cn/GB/82288/83851/83861/15164304.html>; "江澤民在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1997年9月12日)."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8/65445/4526285.html>

"江澤民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2002年11月8日)."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65444/4429125.html>;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2007年10月25日)."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104019/104099/6429414.html>

은 1997년 12월 장쩌민(江澤民)이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공식 제기했다. 장쩌민이 제기한 이 전략에 기초해, 중국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1단계, 2001년부터 2020년까지를 2단계, 2021년부터 2050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국방 및 군사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⁹⁾ ‘2008년 중국의 국방백서(2008年中國的國防)’에 따르면, 중국은 이 발전 전략에 따라 2010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2020년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 건설에서 중대한 대진전을 이루며, 21세기 중엽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까지의 첫째 단계의 주요 목표는 세계 군사강국과의 군사적 격차 축소, 가상 적국 봉쇄와 국부전 승리를 위한 능력 구축을 목표로 해 왔다. 이는 다운사이징, 구조 조정, 재조직화를 통해 군사 구조를 현대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구상이었다. 이후 2020년까지 제2단계에서 중국은 지역 내에서 우세한 군사 강국으로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필요할 경우 군사적으로 자국의 역내 지정학적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 중국은 자국에 맞서는 타국의 해군에 상응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장착한 해·공군력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가 마무리되는 2050년경까지 중국은 세계적 군사강국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 시기 세계적인 군사 강국에 맞설 수 있는 우주전, 핵억제, 해군력 그리고 군사 투사 능력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¹⁰⁾

후진타오 시기 중국군은 기존의 3단계 군 현대화 전략을 보강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곧 중공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08년말 국방건설을 위한 ‘881 공정(881工程)’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중국군은 2008년에서 2028년까

9) 江澤民, "實現國防和軍隊現代化建設跨世紀發展的戰略目標(一九九七年十二月七日)." 江澤民, 『江澤明文選(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2006, pp. 82~90.

10) Kapila, Subhash,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Major Thrust Areas." *Paper for South Asia Analysis Group*, no. 2228(2007.1.5). <http://www.southasiaanalysis.org/%5Cpapers23%5Cpaper2228.html>(검색일: 2010.7.20);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北京: 2008年版.

지의 기간을 3단계로 나누고, 이 기간에 군사국방 건설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함으로써, 미국, NATO, 러시아와 같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881공정' 계획에 따르면, 첫 단계인 2008년~2013년 사이 중국군은 6천억 위안의 특별 자금을 동원해 군의 병종 비율 조정, 고등군 사학원 증설을 추진하고, 군사과학 연구단위를 강화하며, 군사장비기구 자금, 인재(人才)를 보장하게 된다. 또 공군, 해군, 제2포병 3개군의 병종에 대한 첨단기술 장비의 투입을 위한 장비 생산 부대를 갖출 예정이다. 제2단계는 2014년에서 2022년으로, 1조 4천억 위안을 투입해 국방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시기 국방 건설 정도는 아래 5가지 상황에 상응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가지 상황은 국가경제건설 전체 실력, 국가의 국제적인 지위 및 영향력, 국제정세의 발전, 국가의 아태지역·세계 지역의 질서 등이다. 최종 단계인 제3단계(2023~28년)에는 1조 위안을 들여 '5개 배치(部署)', '5개 목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들 배치와 목표에는 군사국방 건설 현대화의 기본 완성, 미국·NATO·러시아와 같은 세계적인 군사강국화, 육·해·공군의 규모의 축소(기존의 280만명에서 120만~140만명), 전군(全軍) 편제(編制)에서 군사학원 수료생의 비율 확대(현재의 12%에서 55%~60% 수준으로), 군사장비 분야에서 '1대(代)의 연구·제작'·'1대(代)의 예비연구'·'1대(代)의 생산 장비'와 같은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¹¹⁾

Ⅲ. 핵심이익 개념의 확장과 글로벌 방위 구상의 출현

1998년 이래 중국은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이라는 국방백서를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이 백서는 중국군을 비롯해 국무원내 안보 관련 부서가

11) 田穗, "軍事國防'881'工程啓動." 『爭鳴』 2009年2月, p. 16.

사실상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중국이 인식하는 안보환경 및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국방'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군사과학원 주도로 작성되고 있는데, 중앙군사위원회 4개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장비부, 총후근부), 총참모부 외사관공실 등 중국군은 물론, 국무원 신문관공실(新聞辦公室) 등도 백서 작성 과정에서 주요 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무원 내 안보 관련 부서들도 백서 작업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중국의 국방'은 국무원 및 인민해방군이 합의적인 성격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 점에서 이 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국의 안보환경 및 안보위협요인에 대한 평가는 중국의 안보정책관련 부처 및 엘리트들 사이에 상당 정도로 합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세계 편입 심화와 국력 신장 등을 배경으로 중국이 인식하는 안보 위협 요인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 미국 경제의 상대적 정체와 맞물려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에 대한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발표된 이들 국방백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중국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 의해 규정되는 국제정치에 "패권정치", "강권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이 백서들에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군의 재배치,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상하이 푸단대학(復

12) 이에 대해 군사과학원(軍事科學院戰爭理論和戰略研究部)의 윈빙(溫冰) 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國防白皮書編制是中央和軍委下達的一個任務，是由總參外事辦公室負責牽頭協調，根據軍委的具體要求，組織軍隊的四總部和國家有關部委，以及軍事科學院共同完成編制，可以說國防白皮書是集體智慧的產物。國家有關各個部委都有相關部門參加。具體撰寫以軍科院為主，總參外辦和國務院新聞辦等安全要參部門組成內制專家組，其他部門對初稿進行修改，提出意見，這是要保證白皮書把國家的政策準確的表述清楚，我們對安全形勢的判斷要符合中央的基本判斷，這是最基本的要求。在編制過程中，我們要反反覆復研究，對每個詞都要把握的很准，主要是提高它的準確性。" "軍事科學院專家解讀《2010年國防白皮書》(實錄)。" 『中國網』 2011年4月1日,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1-04/01/content_22276860.htm

旦大學) 선딩리(沈丁立) 교수는 중국의 주요 안보 불안요인으로 미중간 불신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특히 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모욕적이고 참기 어려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¹³⁾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의 국방백서는 과거에 거론하지 않은 더욱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을 다루고 있다. 이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정보화)의 성장을 배경으로 국가이익과 관련된 지역, 공간 및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외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안보이익은 기존의 협의의 지리적 변경에서 벗어나 앞서 언급한 해양 공간을 포함해 우주·전자 공간 등으로 확장되면서, 해양 안전, 전자 공간 등의 안전에 중국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¹⁴⁾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발행되기 시작하는 중국의 국방백서는 기존 백서에 비해 비전통안보, 해양 안보, 에너지 안보 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6년, 2008년, 2010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해양권(海洋權) 및 해양영토 분쟁, 해상운송로 문제, 해적 등을 거론하며 해양안보 문제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13) Shen, Dingli, "A Chinese Assessment of China's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China Brief*, vol. 11, no. 5, 2011, p. 7.

14) "肩負人民軍隊的光榮使命: 紀念中國人民解放軍建軍80周年," 『廣西日報』, 2007年7月31日, <http://cpc.people.com.cn/GB/64093/64099/6049509.html>

<표 1> 자국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추이

백서 (연도)	국제 질서 (정치·군사)	아태지역 (미국)	한반도	대만	기타 이슈
2002	불공정한 국제정치 경제, 패권주의/강권주의, 군사력 불균형	일부 국가 아태지역 내 군사배치/군사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진척 복잡	대만 독립 기도	테러/분열/극단주의
2004	패권주의/일방주의, 전략요충지/전략자원/전략주도권 쟁탈 격화, 정보화요인에 따른 군사력 불균형 심화	아태지역 내 미군 개편, 군사동맹 강화, MD 가속화; 일본 헌법 개정 움직임, 자위대 해외 군사활동 강화	6자회담 기초 불안정, 북한핵문제 해결 불안정	대만 헌법개정 통한 독립 추구	테러/해적/밀수/마약 등
2006	패권주의/강권주의, 비전통 안보 위협, 군사력 불균형 여진, WMD 확산	미군 재배치 가속화/아태지역 군사능력 증강, 미일군사동맹 강화/일체화, 일본 평화헌법 수정/집단 자위권 보장 기도	북한 핵실험/동북아 정세 악화	대만 독립 추구	이라핵문제, 이라크/아프카스탄문제, 에너지자원·운송 통로상 안보문제 상충, 영토/해양권 문제
2008	전략 자원/요충지/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격화, 패권주의/강권정치, 국제적 군사경쟁 격화, 반MD, 군사 우주 등	미국 아태지역 내 전략적 관심 견지, 군사동맹 강화, 군사배치 재조정	6자회담 단계적 차원의 성과	대만 독립 추구	테러리즘/환경재난/기후변화/초국적 범죄/해적 등, 영토/해양 이익 분쟁, 테러/분열주의, 해양, 우주, 전자적 공간 안보 능력 확보
2010	전통대국과 신흥대국간 빈번한 모순 현저, 일부 대국 우주·네트워크 극지 전략·글로벌 신속타격수단 발전·반MD 능력, 네트워크 작전 능력	미국 아태 동맹체계 강화, 역내 안보 이슈에 대한 개입 강화	빈번한 정세 긴장	양안관계 긍정적 진전	테러리즘, 경제안보, 기후변화, 핵확산, 정보안보, 공공 위생, 초국적 범죄; 영토·해양 권의 분쟁 빈번, 해적 문제, 일부지역 정치 불안, 분열주의, 우주·전자·네트워크 안보

출처: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北京: (2002年版), (2004年版), (2006年版), (2008年版), (2010年版) 자료 이용 정리

최근 중국의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확대돼, 2008년과 2010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우주공간, 전자적 공간, 네트워크 영역의 안보 위협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0년 국방백서는 “일부 대국들은 우주공간, 네트워크, 극지(極地) 전략을 마련하고, 전지구적 타격 수단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고, 네트워크 작전능력을 증강

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의 정귀량(鄭國梁)과 쥬자민(簡家民)은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우주기지와 우주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주공간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안보와 국가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또 양지에츠(楊潔篪) 외교부장도 2009년 제네바 핵 군축 회의에서 우주공간은 인류 공통의 재산으로 우주공간의 안전과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점차 우주공간이 무기화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¹⁶⁾

이에 따라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보호하려는 국가이익, 곧 핵심이익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물리력의 사용까지 불사하며 지켜내고, 또 다른 국가와 타협할 여지가 없는’ 핵심이익을 대륙의 영토와 티베트, 신장, 대만과 같이 ‘지리적 국경(地理邊疆, geographical frontier)’으로 제한해 왔다. 그런데 중국이 군사강국화, 해양강국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은 ‘전략적 국경(戰略邊疆, strategic frontier)’ 개념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¹⁷⁾ 구체적으로 중국은 2010년 들어 본격적으로 주변 해역인 남중국해, 황해 등을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¹⁸⁾ 그리고 2012년 중국

15) 鄭國梁·簡家民, "維護我新空間國防安全的立法思考." 『光明日報』, 2009년6월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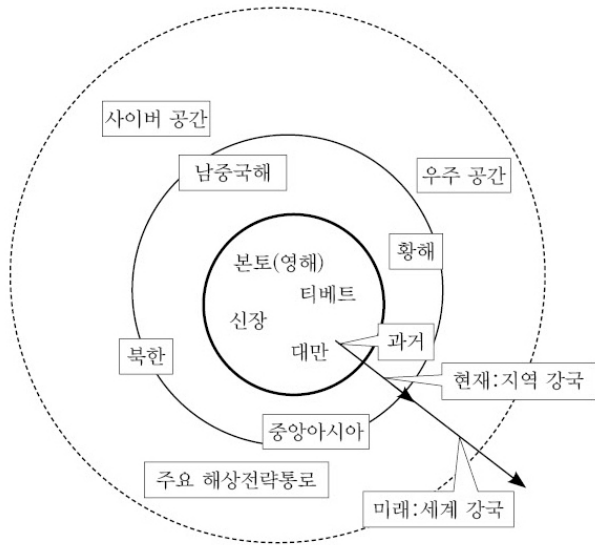
16) "外交部長楊潔篪在日內瓦裁軍談判會議上的講話." 『外交部網站』, http://www.gov.cn/gzdt/2009-08/12/content_1390250.htm

17) 중국의 ‘전략적 국경’ 개념에 대해서는 “解放少將：中國崛起首先需要戰略邊疆概念.” 『新浪網』, 2009년11월1일, <http://mil.news.sina.com.cn/2009-11-01/0959572138.html>

18) 2010년 3월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제임스 스타인백 미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中國向美高官表示南中國海乃中國的核心利益." 『聯合朝報』, 2010년 7월4일, <http://www.zaobao.com/wencui/2010/07/bbc100704.shtml>; 段聰聰, "外交部回應美韓黃海軍演 闡明中國核心利益範圍." 『中國新聞網』, 2010년7월14일, <http://www.chinanews.com/gj/2010/07-14/2401451.shtml>; 2010년7월8일 중국 외교부 정래브리핑에서 친강(秦剛)은 한미 서해훈련에 대해, 이 훈련은 중국의 안보이익과 관련된다며, "건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問:中方是否就美韓黃海聯合軍演向有關方面表示關切? 美韓推遲軍演是否因爲中方施壓? 答:中方已就此向有關方面表明嚴重關切。我們的立場是一貫的、明確的。我們堅決反對外國軍用艦機到黃海及其他中國近海從事影響中國安全利益的活動, 並希望有關各方保持冷靜克制, 不做加劇地區局勢緊張的事。"外交部就美韓黃海軍演等問題答問(全文)." 『中國網絡電視台』, 2010년7월8일, <http://news.cntv.cn/china/20100708/103327.shtml>

은 중앙아시아의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아시아 지역도 새롭게 자국의 핵심이익 지역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¹⁹⁾ 국력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경우, 중국의 중장기 발전목표들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글로벌 슈퍼파워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 북한뿐만 아니라 전략적 해상 통로, 사이버공간, 우주공간 등도 중국의 핵심이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²⁰⁾

<그림 1>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의 확대 추이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중국군 건설과 운용 목표와 관련하여, 2004년말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후진타오는 ‘신시기 신계단 군대의 역사

19) 중국 외교부 부부장 청궈평(程國平)은 2012년 6월 개최된 상하이 협력기구(SCO)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결심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나 북아프리카와 같은 동란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外交部副部長：中亞穩定涉及中國核心利益。』 『成都商報』(電子版), 2012年6月9日, 第10版.

20) 이와 관련, 북한 유사시 중국군 개입 가능성과 그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1호, 2010, pp. 33~59.

적 사명(新時期新階段軍隊的歷史使命)'으로 '3개 제공, 1개 발휘'를 요구하였다. 곧 '(중공)당이 집정(執政)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역량 보증을 제공한다', '국가발전의 전략적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한 전략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²¹⁾ 이 '3개 제공 1개 발휘'의 역사적 사명에 근거해 후진타오는 '정보전하 국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과 다양화 군사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능력 제고를 제기했다. 이러한 사상은 군대 건설과 군사투쟁 준비에 중국군에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국토방위'에서 국가이익 수호로의 전략의 전환'. 둘째, 육군 중심에서 육·해·공·우주·전자 군 일체화로의 군사역량 구조의 전환, 셋째, 실전 중시에서 (전쟁) 억지 중시로의 전환이다.²²⁾

한편 중국군의 주요 국방 목표와 임무의 하나인 국가 주권·안전·발전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2010년 중국의 국방(2010年中國的國防)'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자국의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침략의 방비 및 격퇴, 영토·내수(內水)·영해·영공의 안전 보장, 국가해양 권익 및 국가 해양이익 보호, 국가의 우주·전자·네트워크공간의 안보 이익 보호, 대만 독립의 반대 및 억지, 동(東)투르키스탄 및 티베트 등 분리 세력 단속을 통한 국가 주권 및 영토 통합성 수호, 국가발전전략과 안보 전략에 대한 기여를 통한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 보호, '신시기 적극적 방어' 군사전략방침 관철, 독립 자주와 전민(全民) 자위의 원칙 견지, 무장역량 건설과 변경방어·해양방어·공중방어 건설 강화, 국가전략능력 건설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중국군의 군사전략도 기존의 방어 중심에서 점차 공세적인 방향

21) 王偉華, "肩負人民軍隊的光榮使命: 紀念中國人民解放軍建軍80周年." 『廣西日報』, 2007年7月31日, p. 8.

22) 蓋延玉主編, 『新中國國防和軍隊建設60年』,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9, p. 16.

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곧 중국군은 우선 주요 아시아 분쟁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억지하려는 기존 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글로벌 군사강국화를 겨냥한 글로벌 방위전략을 점차 구체화해가고 있다.

우선 중국은 유사시 대만 문제 등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해온 기존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미군의 개입을 억지하기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 A2/AD 능력은 미군의 투사능력 준비를 지연시키고, 미군의 투사능력을 중국 영토로부터 효과적인 범위(effective range) 밖에 묶어둘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카테나 미공군 기지나 괌 앤더슨 미공군기지 등과 같은 주요 고정 목표물이나 항공모함과 같은 주요 이동 목표물을 제1도련 밖에 묶어두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은 공군, 해상, 해저, 우주, 전자전 체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²³⁾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A2/A D 능력은 크게 강화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군의 자유로운 투사력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공해일체전(Air Sea Battle)’ 구상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²⁴⁾ 이와 관련, 2011년 11월 1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주일 미군 8천명의 괌 기지 이전 계획이 중국의 반접근/반지역 능력 향상에 따른 위협과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²⁵⁾

다른 한편, 중국군은 글로벌 방위전략을 점차 구체화해가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 공군은 2000년대 중반 기존의 자국 국경 부근에서 공중 우세를

23)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p. 29; Cliff, Roger, et al., *Entering the Dragon's Lair*, Report for RAND, 2007.

24) 중국군의 A2/AD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미군의 공해일체전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Krepinevich, Andrew F., "Why AirSea Baltte?" Report for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0.

25) 古本陽莊, "在日米軍再編:在沖繩海兵隊,戦闘部隊の一部グアムへ 中國念頭に據點分散." 『毎日新聞』, 2011年11月13日.

강조하는 단순한 ‘공방겸비(空天一體, 攻防兼備)’ 전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채택했다. 곧, 2004년 중국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 공군의 군사전략과 관련하여,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전략공군(戰略空軍)’ 건설 방침과 ‘항공우주 일체·공방겸비(空天一體, 攻防兼備)’ 전략을 결정했다. 중국군의 전략공군 건설은 항공 우주 일체화(또는 통합), 공방 겸비, 정보·화력 통합으로 ‘공제공’, ‘공제해’, ‘공제지’를 실현하고 각종 유형의 작전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군 건설을 가리킨다.²⁶⁾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군은 H-8, H-9와 같은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개발 추진, 다양한 위성 공격(Anti-Satellite Weapons, ASAT) 무기 개발, 선룡(新龍)과 같은 우주 폭격기 개발, 우주 차원의 작전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항법·GPS 시스템-‘베이도우(北斗)’ 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해군도 기존의 근해 방어에서 원해 방어로의 전환을 모색 중에 있다.²⁷⁾ 이와 같은 중국 해군의 군사전략은 2008년 중국의 국방백서(中國的國防)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이후, 2010년 국방백서, 2011년 국가해양발전보고(國家海洋發展報告)도 기존의 적극적 근해방어에서 원해방어의 점진적 추진이라는 새로운 해양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해군은 새로 투입되는 구축함의 배수량을 기존의 유사함정에 비해 약 2000톤 이상 증가하는 한편, 3000톤급 호위함과 5000톤급 구축함을 건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2011년 8월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바라그호’의 건조를 완료하고, 시험 운용 중에 있다.

2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楊民青, "中國空軍新戰略與新安全觀：空天一體是戰略選擇." 『瞭望』, 2009年11月10日, http://news.ifeng.com/mil/4/200911/1110_342_1428760_2.shtml; 華人傑·曹毅鳳·陳惠秀, 『空軍學術思想史』, 北京：解放軍出版社, 2008, p. 352; "中央軍委決定：建立'戰略空軍'." 『青年參考』, 2004年7月6日, <http://news.anhuinews.com/system/2004/07/07/000687349.shtml>

27) 중국의 항공우주 전력 강화의 배경과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국,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항공우주 전력의 강화," 백승주 등, 『2012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IV. 해공군 위주의 연합작전체계 강화

중국군의 방어 전략이 지리적 국경 방어에서 전략적 국경 방어로 전환해 가면서, 중국군의 작전체계와 지휘체계도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군은 기존의 지상군 위주의 작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전과 전략적 국경 방어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육·해·공군 등 각군의 통합 운용을 위한 ‘연합작전체계(聯合作戰體系)’와 ‘연합작전지휘체계(聯合作戰指揮體系)’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3년 중국군은 신시기 군사전략 방침(新時期軍事戰略方針)을 확정 한 이후, 지상군 중심의 합동작전 개념에서 벗어나 점차 육해공군 통합 운용성을 더욱 높인 연합작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갔다. 이후 중국군은 연합전 역강요(聯合作戰役綱要)와 새로운 연합작전 수행 관련 작전 조령(條令)을 제정하는 한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이론 개발과 군사훈련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²⁸⁾

중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합작전체계 건설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10년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백서는 중국군은 ‘연합작전체계 건설을 군대 현대화 건설과 군사 투쟁 준비의 중점 내용으로 삼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정보 시스템에 기초한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향후 중국군은 정보화 환경에 부합하는 연합작전체계 구축과 운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향후 육, 해, 공군의 작전이론의 일체화(통합)과 지휘 일체화, 3군 통용의 C4I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²⁹⁾ 2010년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제시된 연합작전체계 건설을

28) "現代聯合作戰中的信息作戰." 『中國工程技術信息網』, 2004년2월4日, <http://home.cetin.net.cn/storage/journal/xdjs/xd2004/xd2004-02-4.htm>

29) 平可夫, 『中國製造航空母艦』, Mississauga: 漢和出版社, 2010, p. 7; 崔師增·王俊義, 推進中國軍事變革 加強"一體化聯合作戰." 『千龍網』, 2004년7월7日, http://mil.qianlong.com/4919/2004/07/07/228@2150096_1.htm; "三軍聯合作戰演習深度融合:信息系統為基礎." 『星島環球網』 2011年9月26日, http://news.stnn.cc/glb_military/201109/t20110926_1646260.html

위한 주요 과제는 작전이론 연구 심화, 작전역량 건설 강화, 작전 지휘체계 개선, 종합 보장 능력 제고이다. 각 영역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작전이론 연구 영역에는 새로운 합동 전역(戰役), 합동 작전지휘 조령(條令) 및 관련 보장 조령 반포, 합동 작전 이론 체계 및 합동작전 훈련 방법 체계 형성 등이 포함된다. 작전역량 건설 측면에서는 군대 정보화 건설 수요에 대한 대응, 영도 지휘 체계 개혁, 작전역량 편성 구조 최적화, 새로운 작전 역량 및 보장 역량 내실화, 육상 임무 부대, 해상 편대 및 공중 편대 건설 강화, 군 병종 건설 전환의 적극적 추진, 모듈화 편성 및 합성화(合成化) 사용 수준의 점진적 제고 등이다. 작전 지휘체계 측면에서는 평시 및 전시 일체화, 삼군 연합 기제(三軍聯合機制)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적인 연합작전지휘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종합 보장 능력과 관련해서는 작전 및 보장 기지 건설 강화, 지휘통제·전장 입지 최적화·측량 및 항공관제·기상 수문 진지 사업 및 후방창고·군사교통·장비 수리 시설 등의 개선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우선 중국군은 해공군과 우주군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 건설의 중점이 해공군 및 우주군 건설로 이미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³⁰⁾ 쉬치량 공군 사령원도 2011년 우주전 능력 강화를 기초로 한 ‘항공우주 일체화(空太一體化)·공방 겸비(攻防兼備)’ 중국 공군의 전략임을 강조한 바 있다.³¹⁾ 한편, 2011년 3월 6일자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중국이 2011년 국방비를 해군의 전투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가운데, 중국의 급격한 국방비 증액은 대부분 해군 강화 및 중국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에 우선 집중되고 있다.³²⁾

30) 呂亭, "解放軍已經將建設重點轉向海空與太空部隊," 『軍事文摘』, 第4期, 2008年4月.

31) "許其亮談空天一體戰略," 『西陸網』, http://sjfm.xilu.com/2011/0320/news_526_147439.html (검색일: 2011년 8월 29일)

32) 제2포병의 중국 우주군 건설과 관련된 역할에 대한 주장으로는 平可夫, 『中央軍委最高地下指揮所的機密: 二砲如何按動核導彈電鈕』, Mississauga: 漢和出版社, 2010.

중국군의 지휘체계도 연합작전 능력 강화, 해공군과 우주군 건설 강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연합작전에 대비한 중국군의 지휘체계의 구성은 후진타오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취임을 계기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2004년 후진타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취임 이후 해군 사령원, 공군사령원 그리고 제2포병 사령원이 처음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충되면서, 중국군의 지휘체계는 오랜 기간 유지해온 지상군 중심의 지휘체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2007년 중공당 제17차 당대회 이후 구성된 중앙 군사위원회에서도 쉬치량(許其亮) 공군 사령원, 우성리(吳勝利) 해군 사령원 그리고 징즈웬(靖志遠) 제2포병 사령원과 같은 비지상군 출신 군장성들이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이러한 추세는 지속됐다. 2011년 현재 중앙군사위원회는 후진타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 부주석(2010년 10월 이후)과 같이 2명의 민간 출신이 있으며, 나머지 10명은 군 출신이다. 이와 같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2007년 제17차 중공당 전체회의 이후 개최된 중공당 제17기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군 출신 인사에는 귀바이슝(郭伯雄), 슈차이호우(徐才厚) 상장(上將) 부주석, 량광리에(梁光烈) 국방부장, 천빙더(陳炳德) 총참모장, 리지나이(李繼耐) 총정치부 주임, 라시룽(廖錫龍) 총후군부 주임, 창완완(常萬全) 총장비부 부장, 징즈웬(靖志遠) 제2포병 사령원, 우성리(吳勝利) 해군 사령원, 쉬치량(許其亮) 공군 사령원이 포함된다. 결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이와 같은 인적 구성을 놓고 볼 때 중국군은 이미 육해공군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³³⁾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될 중앙군사위원회 후보군의 인사 자료를 보면, 중국군 최고 지휘체계는 중국군이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

33) 한편, 쉬치량은 부참모장 시절 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해공군을 연합작전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平可夫, 『中國製造航空母艦』, Mississauga: 漢和出版社, 2010, p. 7.

해공군과 우주 중심의 군사력 건설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중공당 제18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전망)

예상 직위	성명	군종	軍/政	현직위	경력 특기사항
主席	시진핑 (習近平)	민간	생략	생략	생략
副主席(2명)	창완완 (常萬全)	(우주군)	군사	人航天工程總指揮; 神舟七號任務總指揮部總指揮長	沈陽軍區司令員
	쉬치량 (許其亮)	공군	군사	空軍司令員	沈陽軍區副司令員兼沈陽軍區空軍司令員; 和平使命-2007"聯合反恐軍演中方總導演
	우성리 (吳勝利)	해군	군사	海軍司令員	廣州軍區副司令員兼海軍南海艦隊司令員
委員:國務委員, 國防部部長(1명)	吳勝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許其亮	생략	생략	생략	생략
委員:總參謀長	장친성 (章沁生)	육군	군사	第一副總參謀長	廣州軍區司令員
委員:總政治部主任	장하이양 (張海陽)	제2포병	정치	第二炮兵部隊政治委員	成都軍區政治委員、黨委書記
委員:總後勤部部長	류원 (劉源)	-	정치	總後勤部政委	부친 류사오치(劉少奇)
委員:總裝備部部長(1명)	장요우샤 (張又俠)	육군	군사	沈陽軍區司令員	北京軍區副司令員
	팡펑웨이 (房峰輝)	육군	군사	北京軍區司令員	廣州軍區參謀長, 國慶60周年閱兵總指揮
委員:海軍司令員	쑤젠궈 (孫建國)	해군	군사	副總參謀長	'長征3號'核潛艇艇長
委員:空軍司令員	마샤오티엔 (馬曉天)	공군	군사	副總參謀長	廣州軍區空軍參謀長; 南京軍區空軍司令員
委員:第二炮兵部隊司令員	웨이펑허 (魏鳳和)	제2포병	군사	副總參謀長	第二炮兵參謀長

* 후보 명단: 高志遠編者, 『十八大與習近平時代』, 香港: 文化藝術出版社, 2011. 출처: 필자 수집자료

이를테면, 차기 중국군 최고사령탑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은 처음으로 순수 육군 출신을 대신해 우주군(天軍) 경험 인사와 해군 또는 공군 출신 인사가 차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차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또는 국방

부 부장 후보로는 창완촨(常萬全) 유인 우주비행 공정 총지휘 및 선저우7호 임무 총지휘부 총지휘장(載人航天工程總指揮, 神舟七號任務總指揮部總指揮長), 쉬치량(許其亮) 공군 사령원, 우성리(吳勝利) 해군 사령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총참모장 후보로는 장친성(章沁生) 현 제1부 참모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우주군, 공군, 해군, 육군 책임자들로 중국군 최고 수뇌 그룹에서 순수 육군의 비중이 기존에 비해 더욱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쑨젠궈(孫建國), 마샤오티엔(馬曉天), 웨이펑허(魏鳳和)도 해군 사령원, 공군사령원, 제2포병 사령원으로 승진하면서 각각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역지력 강화와 지역(나아가 글로벌) 군사 강국화를 추구하는 중국군의 국방 현대화 건설 방향과 상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략적 측면 그리고 장거리 투사능력 강화와 관련된 군종 출신 인사들이 차기 중국군 최고 지도부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군사위원회 후보들의 업무 경험을 살펴보면 중국이 최근 핵심이익을 선언하거나 시사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우성리와 장친성은 각각 광저우군구(廣州軍區) 부사령원과 사령원 출신이며, 창완촨과 쉬치량은 각각 선양군구(沈陽軍區) 사령원과 부사령원을 역임했다. 이들 업무 지역 중 광저우 군구는 중국군의 대대만 및 대남중국해 작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선양군구는 유사시 대한반도 작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중국이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 안보정책을 계속해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적극적 대외안보 정책은 2012년의 권력교체와 같은 국내정치 일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리더십 일반의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국의 안보실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노력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리더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국강병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 중국은 기존의 경제발전 중심의 국가전략에서 벗어나 ‘부국’과 ‘강병’의 동시 추진 전략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세계 편입 심화와 국력 상승을 배경으로 해양, 우주, 극지(極地), 네트워크 등을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군의 역할이 기존의 국토방위에 더해 국가이익 보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중국은 기존의 지리적 국경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전략적 국경 방어 개념으로 안보국방 전략을 선화해 가고 있다.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국군은 글로벌 방위에 대한 초보적인 구상을 이미 마련하고, ‘전략공군’ 건설, 점진적 ‘원해 방어’ 실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방전략과 군사전략에 따라 중국군은 전략적 성격을 지닌 그리고 장거리 투사력 강화에 역점을 둔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강국화전략, 국방전략,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변화·발전 추세를 놓고 볼 때, 2012년 이후 시진핑 시기에도 중국의 안보·국방 정책은 전체적으로 더욱 공세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차기 중국군을 이끌어갈 중앙군사위원회 후보 인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주군, 해군, 공군 출신 인사들이 시진핑 시기 중국군 최고 지휘

부를 구성할 전망으로 이는 중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안보위협 요인이나 국방건설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인사들은 미국 및 주변국과 갈등·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및 남중국해와 연관된 업무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안보·국방 정책의 공세화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은 지역 및 글로벌 리더십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미군의 자유로운 투사를 보장하기 위한 ‘공해일체전’ 과 같은 작전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도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으로 인해 안보 부담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적절한 전략과 대응책 마련, 그리고 비전통안보 분야 등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한중간 신뢰 구축과 같은 문제가 향후 중요한 안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1호, 2010.

이상국 등,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안보·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 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이상국,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항공우전 전력의 강화." 백승주 등, 『2012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薑延玉主編, 『新中國國防和軍隊建設60年』,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9.

江澤民, "實現國防和軍隊現代化建設跨世紀發展的戰略目標(一九九七年十二月七日)." 江澤民, 『江澤民文選(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2006.

古本陽莊, "在日米軍再編:在沖繩海兵隊,戰鬥部隊の一部グアムへ 中國念頭に據點分散." 『毎日新聞』, 2011年11月13日.

高志遠編者, 『十八大與習近平時代』, 香港: 文化藝術出版社, 2011.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北京: (2002年版), (2004年版), (2006年版), (2008年版), (2010年版).

段聰聰, "外交部回應美韓黃海軍演 闡明中國核心利益範圍." 『中國新聞網』, 2010年7月14日, <http://www.chinanews.com/gj/2010/07-14/2401451.shtml>

呂亭, "解放軍已經將建設重點轉向海空與太空部隊." 『軍事文摘』, 第4期, 2008年4月.

楊民青, "中國空軍新戰略與新安全觀:空天一體是戰略選擇." 『瞭望』, 2009年11月10日, http://news.ifeng.com/mil/4/200911/1110_342_1428760_2.shtml

田穗, "軍事國防'881'工程啓動." 『爭鳴』, 2009年2月.

鄭國梁·簡家民, "維護我新空間國防安全的立法思考." 『光明日報』, 2009年6月22日.

趙紫陽, "沿著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在中國共產黨第十三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一九八七年十月二十五日)."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zilia/2003-01/20/content_697061.htm

陳述, "三步走'發展戰略決策的形成與發展.'" 『中國黨政幹部論壇』, 2011年7月15日, <http://theory.people.com.cn/GB/82288/83851/83861/15164304.html>

崔師增·王俊義, 推進中國軍事變革 加強"一體化聯合作戰." 『千龍網』, 2004年7月7日, http://mil.qianlong.com/4919/2004/07/07/228@2150096_1.htm

平可夫, 『中國製造航空母艦』, Mississauga: 漢和出版社, 2010

_____, 『中央軍委最高地下指揮所的機密: 二砲如何按動核導彈電鈕』 Mississauga: 漢和出版社, 2010.

華人傑·曹毅鳳·陳惠秀, 『空軍學術思想史』,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8

Cliff, Roger, et al., *Entering the Dragon's Lair*, Report for RAND, 2007.

Christensen, Thomas J.,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a Monster?: the Rise of China and U.S. Policy toward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1, 2006.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Dyer, Geoff, "Sabre-rattling at Washington risks opening Pandora's box." *Financial Times*, February 9, 2010.

Kapila, Subhash,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Major Thrust Areas." *Paper for South Asia Analysis Group*, no. 2228(2007.1.5). <http://www.southasiaanalysis.org/%5Cpapers23%5Cpaper2228.html>(검색일: 2010.7.20)

Krepinevich, Andrew F., "Why AirSea Baltte?". *Report for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0.

Shen, Dingli, "A Chinese Assesment of China's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China Brief*, vol. 11, no. 5, 25 March 2011.

Swaine, Michael D., "Perceptions of Assertive China."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2, Summer 2010.

"江澤民在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1997年9月12日)."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8/65445/4526285.html>

"江澤民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2002年11月8日)."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65444/4429125.html>

"軍事科學院專家解讀《2010年國防白皮書》(實錄)." 『中國網』2011年4月1日,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1-04/01/content_22276860.htm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2007年10月25日)."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104019/104099/6429414.html>

"肩負人民軍隊的光榮使命: 紀念中國人民解放軍建軍80周年," 『廣西日報』2007年7月31日, <http://cpc.people.com.cn/GB/64093/64099/6049509.html>

- "三軍聯合作戰演習深度融合:信息系統爲基礎." 『星島環球網』 2011年9月26日, http://news.stnn.cc/glb_military/201109/t20110926_1646260.html
- "外交部副部長:中亞穩定涉及中國核心利益." 『成都商報』(電子版), 2012年6月9日, 第10版
- "外交部就美韓黃海軍演等問題答問(全文)." 『中國網絡電視台』, 2010年7月8日, <http://news.cntv.cn/china/20100708/103327.shtml>
- "中國向美高官表示南中國海乃中國的核心利益." 『聯合朝報』, 2010年7月4日, <http://www.zaobao.com/wencui/2010/07/bbc100704.shtml>
- "中央軍委決定:建立'戰略空軍'." 『青年參考』, 2004年7月6日, <http://news.anhuinews.com/system/2004/07/07/000687349.shtml>
- "解放少將:中國崛起首先要有戰略邊疆概念." 『新浪網』, 2009年11月1日, <http://mil.news.sina.com.cn/2009-11-01/0959572138.html>
- "許其亮談空天一體戰略," 『西陸網』, http://sjfm.xilu.com/2011/0320/news_526_147439.html
- "現代聯合作戰中的信息作戰." 『中國工程技術信息網』, 2004年2月4日, <http://home.cetin.net.cn/storage/journal/xdjs/xd2004/xd2004-02-4.htm>
-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的报告(2007年10月25日)."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104019/104099/6429414.html>

ABSTRACT

A Study for the Assertiveness of
China's Security and Defense Policy

Lee, Sang-Kuk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In recent years, China has often behaved assertively or offensively in international politics. this study presents that China's assertive foreign policy has been influenced by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Chinese leadership's perceptions of national security threats which have been shaped by the growth of China's national power. Moreover, the author prospects that China's security and defense policy may be more offensive in Xi Jinpin era by analyzing the new possible members, of China's Central Military Committee, which have reflected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y.

Keywords: China,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licy, National Strategy,
Core Interests, Joint Operation System, Central Military Committee

투고일: 2012년 6월 24일, 심사일: 2012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0일